<참고>

- * 오디오 질이 너무 안 좋네요. 파일 중 표시 된 부분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잘 안 들리는 부분: 밑줄
 - 아예 안 들리는 부분: ...
- * 목사님이 끝부분을 너무 뭉개지게 얘기하셔서 못 적은 부분이 좀 있어요. 몇 번씩 듣고 최대한 들리는대로는 적긴 했는데... 완벽히 못 해 드려서 죄 송해요ㅠㅠ 그럼 수고하세요!

48과 다윗과 절뚝발이 왕자 - 김성태 목사

다윗과 절뚝발이 왕자입니다.

다윗과 절뚝발이 왕자

이 과가 사실은 여기에 핵심이, 핵심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통한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과의 우정을 변치 않기 위해서 약속한 것부터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을 나중에 <u>대우했다는(? 39초)</u> 그런 내용인데 그 이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 또 다윗과 므비보셋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읽겠습니다.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며 신실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사울의 눈에 띄여 아버지의 품을 떠나 왕궁에서 지내면서 사울의 아들인 요 나단과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집요한 핍박과 살인의

위협을 피해 다니다가 결국 사울은 죽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은 그 동안에 자신을 핍박했던 사울과 그의 가문에 대하여 큰 복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특히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다윗, 요나단의 사랑을 받은 다윗의 모습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왕의 아들이었는데 다윗한테 다 내어주잖아요?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2:19)

그러니까 요나단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을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 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한테 <u>대우해준 것을(2:49)</u>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과를 공부하면서 정말 요나단의 아낌없는 사랑 그 사랑을 받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그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번 보시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다윗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이전에 약속한 것을 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 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찌니라

Y le dijo David: No tengas temor, porque yo a la verdad haré contigo misericordia por amor de Jonatán tu padre, y te devolveré todas las tierras de Saúl tu padre; y tú comerás siempre a mi mesa.

그래서 그랬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없던 걸 준 것이 아니라 받은걸 준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베푸는 은총과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는 악에 익숙합니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죠.

사람의 본능은 남을 사랑할 수 없잖아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본능을 거스리고 남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먼저 받은 게 있어야지 준다는 거죠?

만약에 받은 것 없이 준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u>...(4:25 아무리 들어도</u> <u>안 들려요ㅠㅠ)</u>

그러니까 남을 사랑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거라는 생각을 해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열 번 중에 한 번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뜻이 아니잖아요

계속, 쭉,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서 그런 모습을 받은 ...가(4:40)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이후에 진정으로 선을 행하여 사랑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준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Habiendo purificado vuestras almas por la obediencia a la verdad, mediante el Espíritu, para el amor fraternal no fingido, amaos unos a otros entrañablemente, de corazón puro;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어떠한 상황 다 할 수 있죠

근데 교회가운데서 우리가 보면 주는 것 없이 미운사람들 더러 있어요

그리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구역모임을 갔는데 어떤 형제님이 그러세요

구원받은 지 2년 되신 분이 이제 본인이 간증하시는데 아 왜 구원받은 분들이 다, 다 좀 잘 하면 좋을텐데 왜 안 그러느냐 이제 그런, 그런 이렇게 푸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별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형제와 자매들 중에 그런 분들을 허락하 신 것은 사실은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구원받음과 동시에 인격적으로 다 어떤 진짜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다 좋다 면은 우리가 사랑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모난 부분일수록 마음에 안 드는 분이 계셔도 그렇게 그런 분들을 있 게끔 허락하신 것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왜? 그런 분들을 사랑하라고

정말 그 사람들만(6:23) 사랑한다면 상급이 있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우리 한테 상급을 주시기 위한 좋은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킨 것처럼,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잊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맞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돼 있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En el amor no hay temor, sino que el perfecto amor echa fuera el

temor; porque el temor lleva en sí castigo. De donde el que teme, no ha sido perfeccionado en el amor.)

그 말이 정말 우리한테 하는 말 같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정말 이, 이 전도의 그 말씀은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경험해야지 영원한 속 죄가 있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르게 하면 전도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거리낌이 있거나 아니면 두려움이 있다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두려움보다 작다고 합 니다.

정말 전도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았다면 두려움보다 전도하는 거 앞설 수 있죠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속에서 작게 만들어 버리는...

어떻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씀처럼 정말 전도하는데 어색함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작게 만들어 버리는거거든요

그런 때는 다시 회복해야 되겠죠? 그죠?

첫 사랑을 회복해서 정말 마음속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전하는 마음이 생겨 야 하는 거잖아요?

굳이 서원하지는 않더래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있죠.

두 번, 이(2)번

다윗의 은혜를 받은 므비보셋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은혜를 받은 므비보셋의 그 상태가 두려워했다. 그죠?

자기의 존재를 안 감췄거든요(8:51)

자기의 형편을 아니까 궁핍한 모습을 아니까 더욱더 두려워했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거든요?

두려움에 떨고 있고 궁핍했고 무력한 그 므비보셋의 상태가 구원받기 전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려웠다.

아마도 므비보셋은 두려운 나머지 왕을 피해 숨고, 숨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본심과는 상관없이 다윗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그를 두려워합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죠?

또 궁핍했다.

육신적으로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하염없이 어려웠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사람들, 사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떠났잖아요?

가죽, 가죽옷을 아담처럼 지어 입혀주지 않고 가인은 떠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가인의 후예들이 되게 번창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은 굉장히 곤고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궁핍한 거예요.

오히려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이 고난하고 심령이 가난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건데 반대였잖아요?

외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부요했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궁핍했거든 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가난한 마음이 없으니까 노아 시대 때 다 <u>죽여</u> 버립니다. (10:48)

그러니까 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궁핍한 상태가 사실은 잃어져있는 영 혼들의 그 마음상태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께 복이 있다고 하셨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외적으로 부유하면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 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궁핍한 게 좋다.

오히려 우리가 외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 안 됐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통회함을 보이거나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굉 장히 좋은 거다...(11:19) 왜? 그래야지 한 사람을 바꿀 수 있으니까(11:21)

상대방 먼저

무력했다.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상태를 보면 왕과 자기를 비교하면 전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100%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듯이 다윗의 은혜를 받은...(11:47)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원수 집안의 자식이므로 다윗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은혜를 받아,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므비보셋의 모습은 나면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므비보셋이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노래)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있었죠~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은 요나단과 다윗과의 계획 속에서 일련 되어진 므비보셋의 그런 행복한 왕의, 왕의 모습이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주 옛날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다.

그게 뭐냐? 100% 은혜를 주시는 반면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 주시는 거잖아 요

그런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13:05)

살아온 과정은 죄악 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비싼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렇잖아 요?

왕이 돼 가지고 철저하게 어떤 환경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므비보셋을 다윗이 왕 자리에 들여 놓는 거잖아요?

그런거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또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Mas Dios muestra su amor para con nosotros, en que siendo aún pecadores, Cristo murió por nosotros

그랬습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행함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고 밑에 쭉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시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Fiel es Dios, por el cual fuisteis llamados a la comunión con su Hijo Jesucristo nuestro Señor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33장에 보면 (1)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죠

Mirad cuán bueno y cuán delicioso es Habitar los hermanos juntos en armonía!

그런데 형제가 동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동거하는 모습이 하나 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거거든요?

동거만 한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교제를 하나님이 미쁘시게 보는 이유가 왜냐하면 형제가 자매가 연합해서 동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도 하나가 돼서 한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연합하지 않고 전도만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쁘지는 않

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같이 교제하면서 그 마음도 하나가 되는 것이 정 말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다윗은 온 마음으로 므비보셋을 보살펴 줬잖아요?

마음이 먼저였거든요? 왜?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정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나한테 별로 좋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도 사랑할 수 있는거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져 있는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3번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자식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 잃어진 영혼을 찾는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찾은 므비보셋을 사랑하여 함께 교제한 것처럼, 잃어진 영혼을 구 원하고 함께 사랑하며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잃어진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뭐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는 네 이웃을 사랑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열 가지 십계명 더 나아가서 구약성경의 613가지 신약성경의 1501가지 계명을 다 지기키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단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이 훨신 낫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구원을 보여주셨죠?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Pues si yo, el Señor y el Maestro, he lavado vuestros pies, vosotros también debéis lavaros los pies los unos a los otros.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그랬습니다.

그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했고요 선생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 부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겼다. 그게 쉬운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18:04)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더러운 발을 씻긴 것 처럼 더 낮게 된 것이 없잖아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종의 형체를 가진 분이 하나님 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18:24)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돼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 도 서로 사랑하라

Un mandamiento nuevo os doy: Que os améis unos a otros; como yo os he amado, que también os améis unos a otros.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요구하시죠.

우리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사랑 조금만 나눠주는 거잖아요

매일 매일 아침마다 집 앞 마당에 쌀 한가마니 떨어진다

내일 가면 한 가마니 또 떨어져요. 내일되면 한 가마니 또 떨어져요.

만약에 그런다면 그 중에 한 말씩 남 퍼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한 가마니에서 한 말 퍼주는건 쉽거든요? 왜? 내일 또 떨어지니까

마치 그와 같이 우리는 그만큼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또 받은 사랑 중에 조금만 나눠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먼저는 형제와 자매한테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하는거죠.

그게 주님을 섬기고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 전도하는 것이 잃어진 영혼을 사 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한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잃어진 영혼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를 위해 우리는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형제 와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안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있을 이 유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Y todos los días, en el templo y por las casas, no cesaban de enseñar y predicar a Jesucristo.

그랬습니다.

초대 교회에 왜 그렇게 했죠

그 새들백교회 이야기 읽어 보셨습니까?

뭐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단하다면 우리교회는 더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짧은 시간 만에 지금 성도수가 얼마나 많아요.(20:29)

그니까 그, 릭 워렌 목사가 여러 가지 뭐 적은 방법들이 사실은 대단하고 인 정하는데 세계적으로 감탄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교회 내막을 보면요 우리교회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너무나 확실하고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그 하계수양회 때 그 휴먼 다큐 혹시 그 보셨어요? <u>하계수양회(21:01)</u> 하신 거?

그거는 일부러 몰래 찍은거거든요 그게.

몰래 카메라에요 사실은.

그 멀리서 찍은거거든요 그게? 가까이에서 안 찍고? 눈치 안 채게?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그 이삽십년 목회를 했지만 정말 그 많은 영혼들 지옥으로 보 낸거잖아요

그런거 보면은 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게

정말 생각해보면은요 아찔하다니깐요.

그냥 그 김모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전도인실에? 그 부분만 생각하면 아찔하대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사실은 그것도 은혜죠 사실 은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잘 못 알고...(21:51)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가 서울교회 중앙교회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u>얼만큼</u> 복인지 몰라요(22:00)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보니까 <u>더 확연해 지잖아요? 확인이 되잖아요?</u> (22:04)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하니까 행복에 겨워서 행복인줄 모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좀 이렇게 다른 지역 가보면 좋구요, 저는 저 보다는 기회 가 있으면 애들을 좀 보내고 싶어요.

몽골이나 이런데 키르키즈스탄 이런데

갔다 오면 달라지거든요 시야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으니까 아등바등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만큼 신앙생활 좋은 환경이 없다니까요(22:35)

그 지역교회는요 주일, 주일 말씀 들으러 오는 성도보다 수요일 날 더 많이 오시는 데도 있어요 왜? 수요일 날은 서울교회 말씀을 거기서 틀어드리잖아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귀한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제 3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위치를 한 번 되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하기에 정말 좋거든요 너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잘 못하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잖아요 .

그래서 아마 오히려 환경과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만큼 상급이 많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2006년도에는 정말 조금 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을 더욱더 발휘해서 하나 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데 그리고 또한 전도하는데 열심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4번 므비보셋의 믿음이었다.

여기 보면 전하는 말을 믿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취했다 그리고 받아 들였다.

그 결과 양자처럼 대우를 받았다 결국은 후사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은.

전하는 말을 믿었다.

따라서 부름에 응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므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아와 자신을 맡겼습니다. 주님께서 오시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의 신뢰성을 확인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전하는 것을 믿어야죠.

믿음은 들어야 생기는 것처럼.

2번 겸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엎드려 절하매 라고 돼 있고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는 자신을 8절에 보면 '죽은 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사무엘하 20장 8절에 보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죽은 개라고까지 고백할 정도로 낮은 마음을 취했던 거예요 사실.

그게 낮은 마음이 아니라 사실이죠? 사실있는대로죠?

겸손이란 말이 뭔가요? 뭔가요?

겸손이란 뭐냐면 자기를 비하시키는 게 겸손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IQ가 150이나 되는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서 "얘들 아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사전을 한 두권 못 외운다?" 그런다면 그게 겸손 이 아니죠? 약 올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예쁜 미인이 그렇지 않은 여자들 앞에서 나는 좀 어디가 좀 들 이뻐 요 라고 한다면 그건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자기 비하가 겸손이 아니고 겸손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핸디캡 그게 약점이라고 하잖아요?

노력해도 변할 수 없는 것 그게 약점이거든요?

다 누구한테 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약점이 뭐냐면은 눈이거든요 눈이 항상 졸립고 부실해서 별명이 부실이었거든요?

그게 항상 마음속에 상처가 됐어요.

고모나 삼촌들이 "너는 왜 눈이 부실하냐?" 그러면 그게 상처가 돼요.

그런데 그게 성장해서도요 그게 회복이 안 돼요

지금도 상담할 때도요. 상대방의 눈을 못 보고 얘기를 한다니깐요 제가?

왜? 그만큼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그게 핸디캡이거든요 약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겸손이란 말이 뭐냐면 그 약점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게 그게 겸손이다 그거예요

다 겸손, 겸손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제 자매가 간증하면서 자기의 약점을 솔직히 시인 했을 때 그게 우리는 큰 교훈을 받잖아요?

그게 겸손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보면 므비보셋이 솔직했어요. 자기의 상태를 확실히 알았거든 요?

그걸 인정한 거죠? 그게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사실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겸손...(27:14, 기침소리 때문에 안들리는데 겸손이라는거죠. 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잘못알고 자기를 비하시키게 겸손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는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기 유인물에서는 적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y por todos murió, para que los que viven, ya no vivan para sí, sino para aquel que murió y resucitó por ellos.

그랬습니다.

큰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이제는 삶을 좀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에게 이끌려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매인 줄을 끊으라 는 거잖아요 죄에게 종 되었다라는 말은 누구한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는 다는 것은 끈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무슨 끈에.

끄는대로 가는거잖아요.

그 끈을 끊으라는거거든요.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거죠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의에게 종노릇하라는 거잖아요

항상 의로운 마음을 갖고 행한다면 그게 끈에 매여있는거예요. 의한테

왜? 의로움에 끌려 다니는 거니까 그게 의의 종이라는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은 뭐죠?

생활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씀을 열개를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 외운 말씀을 그분이 두 가지만 행해요. 그러면 그 분은 말씀을 2개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것이 다 아는 게 아니라는거거든요

내용물을 행할 수 있어야 그게 아는 거죠. 백가지 알면 뭐 합니까? 행할 수 없으면 무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양학 박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말씀은 많이 알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아요.

그게 아무 유익이 없는거거든요. 그 분은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많이 알면 뭐합니까?

형제, 자매 미워하는데.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내가 행할 수 있을 때 그걸 진실로 안다라는 거잖아 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한 지식이죠.

우리는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죠. 사실은. 행할 수 있을 만큼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은 자세히 몰라도 어떤 자매님이 정말 형제를 사랑해요 순종해요 그게 최고라는거에요. 그게 진짜 아는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아 는거

(요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Y esta es la vida eterna: que te conozcan a ti, el único Dios verdadero, y a Jesucristo, a quien has enviado)

우리가 뭘 알아요? 아는 것은 경험한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아는 것 정확한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아 는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났을 때 그게 진짜 아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소괄호 3번에 받아들여졌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거죠.

(삼하9:7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찌니라)

(Y le dijo David: No tengas temor, porque yo a la verdad haré contigo misericordia por amor de Jonatán tu padre, y te devolveré todas las tierras de Saúl tu padre; y tú comerás siempre a mi mesa.)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영접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En el último y gran día de la fiesta, Jesús se puso en pie y alzó la voz, diciendo: Si alguno tiene sed, venga a mí y beba.

그리고 가면 되는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비하심이 지극하시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으로 써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관영할지라도 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랬습니다.

므비보셋은 받아들였거든요. 백퍼센트

거절했다면 은혜를 못 받은 거잖아요?

결국은 양자처럼 대우를 받았습니다.

(삼하9:11)... 므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Y respondió Siba al rey: Conforme a todo lo que ha mandado mi señor el rey a su siervo, así lo hará tu siervo. Mefi-boset, dijo el rey, comerá a mi mesa, como uno de los hijos del rey.

비록 그는 절뚝발이였지만 계속해서 왕의 상에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므비보셋을 친 자녀처럼 여겨 동등한 대우로 예우하였다는 말입니다.

결국 므비보셋의 많은 결점은 사랑으로 인하여 덮여졌습니다.

왕이 사랑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랬죠? 로마서 14장에

(롬14:4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매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Tú quién eres, que juzgas al criado ajeno? Para su propio señor está en pie, o cae; pero estará firme, porque poderoso es el Señor para hacerle estar firme.)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사랑하는데 누가 뭐랜들 상관없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형제와 자매가 서로 뭐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왕이 사랑했는데, 왕이 인정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형제, 자매를 내 잣대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거죠

책망 했잖아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주인이냐? 물어보시는거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5번에 후사가 되었습니다.

(삼하9:7) 다윗이 가로되...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Y le dijo David: No tengas temor, porque yo a la verdad haré contigo misericordia por amor de Jonatán tu padre, y te devolveré todas las tierras de Saúl tu padre; y tú comerás siempre a mi mesa.

약속하셨죠

므비보셋은 왕의 은혜로 말미암아 빈곤으로부터 풍성함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para una herencia incorruptible, incontaminada e inmarcesible, reservada en los cielos para vosotros,

정말 실속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쌓는 것이 정말 실속있는거거든요

왜? 사랑을 받은 거니까 받은 거에서 얼마를 주자라는거예요.

우리가 주님 봤을 때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준 것 가지고 누구를 위해 썼냐? 그러실거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준 모든 걸 가지고 정말 나를 위해 썼냐? 너를 위해 썼냐?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게 어디 있어요? 내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나를 위해 썼느냐? 아니면 주님을 위해 썼느냐?

반드시 그거 회계하신다고 했잖아요. 계산하시는 거거든요 .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지만 금방 오실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장말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좀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신분이 그리스 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그거잖아요

그게 가장 실속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러 오는 것처럼 우리도 섬겨야 하는 거죠

사랑을 확인했으니까 전하는 거거든요

받은 게 있으니까 나눠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받은 선물이 너무나 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게 신앙생황이죠

그래서 이 과를 공부하면서 요나단과 다윗과의 우정, 사랑.

사실 요나단은 자기 위치 신분이 왕자였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주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u>헌신하는 것은 다 주신다는 의미도 되거든</u> 요.(34:39)

그래서 다윗이 므비보셋을 사랑하는 것은 큰 사랑을 말미암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전해 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있지만 더 큰 사랑을 생각해서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영광스럽습니다.

그 사랑 아직 구원받지 못,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주장해 주시고 또한 그 크신 사랑을 형제와 자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앞에 나아온 어린 영혼들을 보살피고 섬기는데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이얼마나 행복인 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이 아갈 수 있도록 많은 시간과 여건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계획 된 모든 일정 하나님께만 의지하오니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그 큰 권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